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주관성

윤은자¹ · 권혜진² · 김현정³

¹진국대학교 의료생명대학 간호학과 교수, ²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³백석대학교 보건학부 간호학과 조교수

Subjectiv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 Application of Q-methodology

Yeun, Eun Ja¹ · Kwon, Hye Jin² · Kim, Hyun Jeong³

¹Professor, Dept. of Nursing, Konkuk University, Chungju

²Professor, Dep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³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Baekseok University, Cheona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educational solutions and desirable directions. **Methods:** A Q-methodology which provides a method of analyzing the subjectivity of each item was used. 34 selected Q-statements from each of 20 women nursing college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a shape of normal distribution using 9-point scale. Subjectivity on the equality among genders was analyzed by the pc-QUANL program. **Results:** Four types of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in nursing college students were identified. The name for type I was 'pursuit of androgyny', for type II, 'difference-recognition', for type III, 'human-relationship emphasis', and for type IV, 'social-system emphasi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different approaches to educational programs on gender equality are recommended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four types of gender equality awareness.

Key words: Nursing student, Gender, Awarenes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여성들은 주부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여성 정체성만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어느 한쪽에 매임이 없이 남녀 파트너십을 구현하며 평등하고 자유로운 직업인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Vepa, 2007).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심각한 성차별이 존재한다. 유엔에서 매년 측정하는 여성 권한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34개국 중 113위로 하위 수준이다(EBS education, 2010). 또한 직장에서 동등한 업무 수행을 하

라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나은 보수를 받는 사례가 많으며 남성은 여성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지각한다(Kim & Kang, 2009). 이것은 한국사회에 개인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유교적 전통인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Lee & Chung, 2006). 직업 현장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은 개개인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과 연관하여 매우 중요하다. Woo (2007)는 양성평등의식을 가진 사람이 전통적인 성 역할을 고수하는 사람보다 자존감, 자아실현, 성취동기에 긍정적이라고 하였고, Lee와 Chung (2006)은 양성평등의식과 우울에는 역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학 분야에서 양성평등의식의 교육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간호전문직은 대표적인 여성 직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것은 전통적

주요어: 간호대학생, 성, 인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Hyun Jeong

Dept. of Nursing, Baekseok University, 76 Munam-ro, Dongnam-gu, Cheonan 330-704, Korea

Tel: +82-41-550-2260 E-mail: kimhj@bu.ac.kr

투고일: 2011년 6월 23일 심사완료일: 2011년 7월 8일 게재확정일: 2012년 5월 24일

인 간호의 역할이 주로 모성애가 강조되는,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간호사의 역할은 직접적인 신체적인 간호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간호 및 영적 간호를 책임지고 있으며 그 대상도 개인에서 가족 및 지역사회로 확대되었다. 또한 의료 수준의 향상으로 의료 소비자의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자 간호사의 배출로 인해 여성의 성역이라고 여겨졌던 간호사라는 직업에 남성이 등장하면서 여자 직업이라는 편견이 많이 줄어들었다(An & Chu, 2011; Park, Kim, Kim, Nam, & Lee, 2009). 그러나 실제로 병원 문화에서는 여전히 성 불평등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양성불평등의 모습은 성희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의사소통의 문제에 있어 불일치와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Lee (2003)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사가 성희롱을 당하거나 목격하거나 그런 경험을 들은 경우가 53.7%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병원 내 조직 문화와 갈등에 대한 Kim, Park과 Kim (2006)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일수록 타 의료 직종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 자신이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간호전문직에 대한 정체성과 연관된다.

이러한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Ka-beer, 2003). 법과 제도의 변화는 광범위한 평등의식의 확산으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인식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이다(Kim & Kang, 2009). 즉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 인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상자의 인식에 기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다. 특히 최근에는 간호 전문직에 남자 간호사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남자 간호대학생의 수는 1990년 30명에서 2006년에는 2,021명으로 67배 증가하였다(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Nursing Policy, 2007). 이렇듯 남자 간호대학생의 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으로 성역할과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의 고취가 간호계에 시급한 실정이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연구 및 교육은 매우 부족하다. 양성평등에 대한 국내 연구(Bae & Lee, 2005; Jang & Kim, 2010; Lee, Lee, & Shin, 2010; Seo & Park, 2007; Sung & Lee, 2007)는 주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국외에서도 의과 대학생의 양성평등 인식에 관한 연구가 시행되었으나(Bickel, 2001; Verdonk, Benschop, De Haes, & Janssen, 2008)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양성평등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인 인식을 유형화하고 이를 심층 분석하여 대상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인식의 실천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인식 유형과 그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과 의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성평등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인 인식을 유형화한다.

둘째, 양성평등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인 인식의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양성평등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이다.

2. 표집 방법

1) Q 모집단 및 Q 표본의 선정

Q 모집단은 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진술문을 추출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고찰과 개방형 질문지, 그리고 개별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한 자료의 수집은 각 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남녀 대학생 및 청소년, 교수 및 일반인 등 60여 명으로부터 진술을 얻었다. 또한 수집된 개방형 질문지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18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대상자들과 가정, 직업, 생활, 사회 문화 영역 등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양성평등 인식을 심층적으로 면담하였다. 면담 대상자 한 사람당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였고 면담에 대한 동의를 받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항을 녹음하고 기록하였다. 이 외에도 양성평등 관련 선행 연구와 전문 서적, 국내외 전문 잡지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합하여 총 230개의 Q 모집단을 추출하였다. Q 표본의 선정을 위하여 준비된 Q 모집단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범주는 '양성평등의 개념과 관점, 대중문화와 매체, 신화와 역사, 법과 정책, 가족과 성'의 5개 범주였으며 각 범주에 속한 진술문은 최소 7개에

서 최대 89개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를 다시 간호학과 교수 1인 과 Q 방법론 전문가 1인의 검토와 수정 절차를 거쳐 최종 34개의 Q 표본을 선정하였다(Table 4).

2) P 표본 선정

Q 방법론은 양적연구와는 달리 사람이 변인이 되므로 P 표본이 커지면 한 인자에 여러 사람이 편중되어 그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지 않는다는 소표본 이론에 근거하여(Kim, 2008) 임의로 편의 추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C와 K 종합대학교의 간호대 여학생 2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간호사의 대다수를 이루 고 있는 여성의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탐색하고자 함이다(Table 1).

3) Q 표본 분류 및 자료 분석 방법

Q 표본의 분포도는 연구 대상자들이 Q 표본으로 선정된 34개의 진술문들을 강제 분포시키는 Q 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준비하였다. Q 표본 분류 과정은 먼저 Q 표본을 읽은 후 긍정(+), 중립(0), 부정 (-)의 세 부분으로 나눈 다음 각 영역의 진술문들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분류가 끝난 후에는 양극에 놓인 진술문(+4, -4)에 대한 선택 이유를 서술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Q 표본 분포도에서 가장 부정하는 경우(-4)를 1점으로 시작하여 가장 긍정하는 경우(+4)에 9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pc-QUANL Program 을 이용하였다. 유형의 분류는 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산출된 결과와 총 설명 변량 등을 고 려해서 최선이라고 판단된 것을 선택하였다.

연구 결과

1. Q 유형의 형성

연구 대상자의 양성평등에 대한 주관성은 4개의 유형으로 나타 났다. 이들 4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67.43%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각 유형별로는 제 1유형이 46.3%, 제 2유형이 10.1%, 제 3유형 이 5.6%, 제 4유형이 5.3%로 나타났다(Table 2). 또한 이들 각 유형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2. 유형별 특성

연구 대상자의 구성은 제 1유형이 8명, 제 2유형이 4명, 제 3유형이 4명, 제 4유형이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 내에서 인자 가중치 (factor weight)가 가장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의 전형적 (prototype) 혹은 이상적(ideal)인 사람으로 그 유형을 대표함을 의미 한다(Table 1).

양성평등에 관한 주관성을 유형별로 분석, 기술하기 위해 각 대 상자들이 긍정적,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또한 진술 항목에 대한 특정 유형의 표준점수와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방법에 의해 산출된 유 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ctor Weight for P-sample

Type	Var no.	Factor weight	Grade	Religion	Family type generation	Position in family	Double income	Mother's gender equity attitude	Father's gender equity attitude
Type I (n=8)	1	0.95	4	Catholic	2	3rd	No	Good	Good
	3	1.11	4	Protestant	2	2nd	No	Poor	Poor
	10	1.78	2	None	1	1st	Yes	NA	NA
	11	1.53	2	None	1	1st	No	Extremely good	No
	14	0.86	2	Catholic	1	2nd	Yes	Good	No
	15	1.68	2	Buddhist	1	1st	Yes	Good	Good
	18	0.82	1	None	2	2nd	Yes	Extremely good	Very good
	19	0.64	1	Protestant	2	1st	No	Good	Good
Type II (n=4)	4	1.45	4	Protestant	2	2nd	Yes	Extremely good	Good
	7	0.55	2	Protestant	1	1st	Yes	Good	Very good
	8	2.39	2	None	1	2nd	Yes	Good	No
	16	1.31	1	Catholic	3	1st	Yes	Good	NA
Type III (n=4)	13	1.79	2	None	1	1st	No	Good	Good
	2	1.83	4	Protestant	2	1st	No	Good	Very good
	12	0.62	2	Protestant	2	1st	No	Good	Good
	9	1.86	2	Protestant	1	4th	No	Bad	NA
Type IV (n=4)	5	1.66	4	Protestant	2	1st	Yes	Good	Extremely poor
	6	2.69	2	None	1	1st	Yes	Poor	Poor
	17	0.73	2	Buddhist	NA	2nd	Yes	Good	Good
	20	0.61	1	None	2	2nd	Yes	Extremely good	Good

NA=No answer; Var=Variables.

Table 2. Eigen Value, Variance, and Cumulative Percentage

Variables	Type I	Type II	Type III	Type IV
Eigen value	9.26	2.12	1.13	1.06
Variance (%)	0.46	0.10	0.56	0.05
Cumulative	0.46	0.56	0.62	0.67

Table 3. Correlation Matrix between Types

Variables	Type I	Type II	Type III	Type IV
Type II	.51	1		
Type III	.70	.34	1	
Type IV	.61	.57	.43	1.0

• 제 1유형

제 1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20명 중 8명으로, 평균 나이 21.5세, 종교는 없는 사람이 3명이었으며, 부모의 양성평등의식 정도는 한 명을 제외하고 대체로 좋은 상태였다. 제 1유형이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남녀 누구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Z=1.9), '남녀 구분 없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Z=1.8)이었다. 반면 제 1유형이 가장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은 '학력과 양성평등은 비례한다'(Z=-1.6), '남자는 간호학, 여성학 등 전통적인 여성 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Z=-1.6)이었다. 또한 제 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큰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표준 점수 차이가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남녀 누구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이었고, 타 유형에 비해서 점수 차이가 -1.00 이상의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남녀는 모두 능력의 차이가 있다', '양성평등은 남녀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순이었다. 제 1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1.78을 나타낸 연구 대상자 10명은 부모님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20세 여학생이었다. 10명 대상자가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남녀 누구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이었으며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한다. 저기에는 남녀 구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또 인자 가중치 1.68인 15명 연구 대상자는 '남녀 구분 없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로 "남녀 모두가 가능성이 많으며 누구나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누구든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한편 강한 부정적 동의를 한 항목은 '남자는 간호학, 여성학 등 전통적인 여성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로, 항목 선택의 이유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실제 임상에서 남자 간호사를 매우 필요로 하고 또 선호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직업이 남자 직업, 여자 직업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 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적극적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남녀 모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성차별은 옳지 않다는 주관성을 지닌 대상자들로 판단되므로 '양성성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 제 2유형

제 2유형은 20명 중 4명으로, 평균 나이 20.2세였고 4명중 3명이 종교가 있었고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양성평등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였다. 제 2유형이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은 '양성평등은 남녀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Z=2.3), '남녀는 모두 능력의 차이가 있다'(Z=1.7),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Z=1.4),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직업 선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Z=1.3), '교육의 기회는 남녀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Z=1.3)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 항목은 '남자는 간호학, 여성학 등 전통적인 여성 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Z=-1.7), '양성평등의식이 있는 가정은 화목하다'(Z=-1.5), '학력과 양성평등의식은 비례한다'(Z=-1.4) 등으로 나타났다. 제 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큰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은 '남녀는 모두 능력의 차이가 있다', '성 도덕과 성 규범이 남녀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양성평등은 남녀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로 나타났다. 또한 타 유형과 비교하여 부정적 점수 차이가 큰 진술 항목으로는 '양성평등의식이 있는 가정은 화목하다', '남아 선호 사상은 양성평등 사회의 걸림돌이 된다', '여성에게만 혼전 순결을 강요하는 것은 양성평등이 아니므로 나타났다.

제 2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2.39를 보인 8명 연구 대상자는 가장 강한 동의를 한 항목으로 '남녀는 모두 능력의 차이가 있다', '남녀 모두 동등하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이었다. 각각의 문항을 선택한 이유로는 "남자와 여자는 같은 인간이라는 면에는 같지만 서로 둘은 차이가 있어 다르다. 그리고 남녀 모두 하고 싶거나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반면 가장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은 '양성평등의식이 있는 가정은 화목하다'로 선택 이유는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화목해질 수 있는 바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정의 화목이 남녀평등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 2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진정한 양성평등이란 남녀의 양성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남성과 여성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주관성을 지닌 대상자들로 판단되므로 '차이 인정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4. Q-statements on Gender Equity and Z-scores

Q - Statement	Z-score			
	Type I (n=8)	Type II (n=4)	Type III (n=4)	Type IV (n=4)
Q1. Every man and woman can do anything he/she wants	1.9	0.3	0.3	-1.0
Q2. Every man and woman, both can be successful	0.6	-0.1	0.5	0.9
Q3. No division of ability exists between men and women	0.2	0.9	-0.1	0.1
Q4. No difference of fee exists between men and women	-0.3	0.6	0.2	0.6
Q5. Every man and woman has difference of ability	-1.5	1.7	-1.3	-0.5
Q6. Academic career and sense of gender equity is in direct proportion	-1.6	-1.4	-1.2	-0.5
Q7. Gender equity is living together	0.5	2.3	0.9	1.6
Q8. Abolishing the headship of family means gender equity	0.5	-0.3	0.0	0.2
Q9. Portion which is gained during marriage life should be shared	0.1	-0.9	-0.1	-1.4
Q10. Every man and woman can contribute to society	1.8	0.5	1.3	1.7
Q11. Every man and woman should be given chance of education	1.2	1.3	1.0	1.8
Q12. Embellishing oneself is natural for both men and women	0.7	1.3	0.1	0.4
Q13. Every man and woman should be given the chance of job	1.4	1.3	1.0	0.6
Q14. Every man and woman should be given a chance of promotion	1.5	1.3	1.2	0.9
Q15. The duty of supporting family members is not to be given to men and women equally	-1.4	-1.2	-1.1	-1.6
Q16. Men experience re-discrimination through gender equity	-0.9	-0.5	-1.4	-0.1
Q17. A higher sense of gender equity makes for a better relationship between husbands and wives	-0.3	-0.7	1.8	-0.5
Q18. Gender equity makes the home harmonious	-0.2	-1.5	0.9	-0.1
Q19. Systemic support is necessary for a gender equity society	0.0	1.4	-0.8	1.4
Q20. There is no prejudice for women in a gender equity society	-0.6	0.3	1.2	-1.2
Q21. Sexual morality is applied to both men and women equally	-1.1	-0.3	-2.1	-1.5
Q22. The sense of gender equity is necessary when we have contact with the other gender	0.7	-0.4	1.4	0.3
Q23. Older people have a poorer sense of gender equity	0.3	-0.0	-0.5	0.0
Q24. Dealing the women as goods in mass media isn't gender equity	-0.0	0.4	1.1	-1.3
Q25. Majoring in nursing or feminism is not good for men	-1.6	-1.7	-0.9	-1.6
Q26. Men are more trusted than women in an emergency	-1.2	-0.4	-0.8	0.2
Q27. Asking only men to do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is bad	-0.7	-0.8	-0.9	0.7
Q28. The feminine ideal in fairy and myth doesn't fit the gender equity education	-0.3	-0.2	-1.2	-0.1
Q29. There's a difference in gender equality between rural and urban society.	-0.2	0.2	0.2	-0.2
Q30. The level of the concept of gender equity of people who did not have sex education is low	-1.0	-1.1	-0.6	-0.8
Q31. Training opportunity as leaders should be given to both men and women	1.0	0.2	0.4	1.0
Q32. Now our society has gender equity	-1.4	-1.4	-1.5	-1.6
Q33. Preference for boys is an obstacle in a gender equity society	0.8	-0.9	0.2	0.1
Q34. Forcing only women to be chaste is not gender equity	1.1	-0.1	0.9	1.3

• 제 3유형

제 3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20명 중 4명으로, 평균 나이 21세,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기독교인이며 장녀이고 어머니 모두가 전업 주부로 나타났다. 제 3유형이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양성평등 인식이 높은 부부일수록 부부관계가 원만하다($Z=1.8$)', '이성교제 시에도 양성평등이 필요 하다($Z=1.4$)', '남녀 구분 없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Z=1.3$)',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

져야 한다($Z=1.2$)'였고, 가장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은 '성도덕과 성 규범이 남녀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다($Z=-2.1$)', '현재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 사회이다($Z=-1.5$)', '양성평등의식으로 인해 남성이 역할별 받고 있다($Z=-1.4$)', '남녀는 모두 능력의 차이가 있다($Z=-1.3$)'로 나타났다. 제 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큰 점수 차이를 보인 긍정적 동의 항목은 '양성평등이 높은 부부일수록 부부 관계가 원만하다', '양성평등 사회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없다', '양

성평등의식이 있는 가정은 화목하다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부정적 점수의 차이가 큰 항목은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이었다.

제 3유형에서 인자 가중치 1.86로 가장 높게 나타난 9번 연구 대상자가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을 보면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부부 일수록 부부 관계가 원만하다'이었다. 이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양성평등의식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성과 본인의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이 없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원만한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제 3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양성평등의 구현이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지원보다는 부부간, 부모자녀간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성을 중시하며 양성평등을 통해서 양성이 진정한 친밀함과 융화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한 유형으로, '인간관계 강조형'로 명명하였다.

• 제 4유형

제 4유형은 20명 중 4명으로, 평균 나이 21세, 이 중 2명이 종교가 있으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제 4유형이 가장 강하게 동의를 보인 항목은 '교육의 기회는 남녀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Z=1.8)', '남녀 구분 없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Z=1.7)', '양성평등은 남녀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Z=1.7)',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Z=1.4)'이었고, 가장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은 '가족 부양의 의무는 남녀가 동등하게 가질 수 없다(Z=-1.6)', '남자는 간호학, 여성학 등 전통적인 여성 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Z=-1.6)', '현재 우리사회는 양성평등 사회이다(Z=-1.6)', '성 도덕과 성 규범이 남녀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다(Z=-1.5)'로 나타났다. 제 4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큰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은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이었다. 한편 제 4유형이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인 부정적 동의 항목은 '남녀 누구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방송이나 언론에서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양성평등이 아니다'이었다. 제 4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2.67을 나타낸 연구 대상자 6번이 가장 강하게 동의한 항목은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 이었는데 이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국방의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있다. 따라서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가지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 국방의 의무는 남, 녀 모두가 가져야한다"라고 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제도 중에서 양성간 합리적 차별의 근거로 육체적 차별 측면에서 명시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양성의 의무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가장 강한 부정적 동의를 한 항목은 '성 도덕과 성 규범이 남녀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다'이었는데, 그 선택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여자에게 더 가중한 성 도덕, 성 규범을 적용하

고 있는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특성을 토대로 볼 때 제 4유형은 교육과 사회적 규범 및 제반 여건 등의 변화,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므로 이 유형을 '사회제도 강조형'으로 명명하였다.

• 유형간의 공통적 견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양성평등에 대한 주관적 견해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각 유형마다 어느 정도 뚜렷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네 가지 유형의 특성 중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과 관련하여 공통적 견해로 나타난 항목들은 (Table 5)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이를 통해 보면 간호대학생들이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교육의 기회는 남녀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Z=1.32)',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는 남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Z=1.24)', '남녀 모두 동등하게 직업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Z=1.06)'이었다. 반면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은 '현재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한 사회이다(Z=-1.47)', '남자는 간호학, 여성학 등 전통적인 여성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Z=-1.44)', '가족 부양의 의무는 남녀가 동등하게 가질 수 없다(Z=-1.34)'이다. 즉, 간호대학생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주관성의 공통적 견해는 현재 우리 사회는 양성 불평등한 사회라는 것이며 가족 부양, 교육과 직업 선택에 있어서 양성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연구자의 관점이 아닌 연구 대상자의 주관성에서 출발하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을 탐색한 결과, 이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주관적 구조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들 유형별 특성에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 1유형은 '양성성 추구형'이었다. 제 1유형은 남녀 누구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남녀 구분 없이

Table 5. Consensus Items and Average Z-scores

Q-statement	Z-score
Q11 Every man and woman should be given a chance of education	1.32
Q14 Every man and woman should be given a chance of promotion	1.24
Q13 Every man and woman should be given the chance of a job	1.06
Q15 The duty of supporting family members is not be given to men and women equally	-1.34
Q25 Majoring in nursing or feminism is not good for men	-1.44
Q32 Now our society has gender equity	-1.47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에서 적극성, 활동성, 성취 지향성 등은 남성성의 유형으로서, 제 1 유형은 한 개인 안에서 긍정적인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이 공존하여 균형을 이룬다는 양성성의 특성을 지향하는 것이다(An, 2009; Bem, 1975). 1유형의 대상자들이 직업선택, 임금, 승진 등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없이 평등해야 한다고 한 것은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진로 정체감을 향상시킨 Sung과 Lee (2007)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양성평등의식의 직업 영역에 있어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Kim (2009)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가 모두 여학생이라는 점과 제 1유형의 설명 변량(46.34%)을 고려해 볼 때 양성평등의식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Kim & Kang, 2009; Lee & Chung, 2006; Lee, Lee, & Shin, 2010)와 일치하였다. 1유형의 양성성추구형의 대상자들은 모두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들이었는데 이것은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에게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간호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고 긍정적인 자기이미지를 통해 간호전문직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Strasen, 1992).

제 1유형의 대상자들은 높은 양성평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편 자신에게 내재된 양성평등 수준과 실생활에서 느끼는 양성평등의 수준사이에서 괴리를 느낄 수 있는데 Park과 Kwon (2009)는 이러한 유형을 '양성평등 표리부동형'이라고 하여 성역할 및 남녀평등과 관련된 실제 생활 영역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간호사가 직장 내에서 느끼는 양성차별은 남성성이 강조되는 부권사회의 단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Lee, 2003) 제 1유형의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양성평등의식과 상이한 현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 1유형에게는 실생활 안에서의 양성평등, 간호사의 역할 분석 및 평가에 기초한 양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겠다.

제 2유형은 '차이 인정형'으로,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남녀가 서로 능력의 차이가 있으며 그것을 인정하고 상호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양성평등이란 남녀가 서로 보완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에 대해 집단 상담을 실시한 Kim (2009)의 연구에서 성역할 사회화, 노동 분업, 성역할 고정 관념, 권력구조, 직업역할 등에 있어서 남녀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제 2유형에게는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성역할에 대한 개념과 의식을 갖도록 교육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고정적인 성 인식은 특히 의료진과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환자 중심적인 돌봄을 제공하는데 방해가 된다(Verdonk et al., 2008). 고정 관

념적 성별 구분은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하며 새로운 문화형성을 어렵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되기 쉽다(Cho, 2006). 특히 현 시점과 같이 남자 간호사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 고정관념은 간호 실무에서 효율적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전문직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모두 중시되며 양성 특성을 모두 보여 줄 수 있는 유형의 간호사가 이상적인 간호사로 생각되어지고 있다(An, 2009). 즉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위치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성적으로 사회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새로운 성 역할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3유형은 '인간관계 강조형'으로,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부부일 수록 부부 관계가 원만하며 가정이 화목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들은 가족 간의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보고 배우는 자녀와 부모의 역할을 중시하며 양성평등을 통해서 진정한 친밀감과 양성간의 융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이와는 달리 Kim (2004)과 Woo (2007)는 부부 상호적인 요인인 부부간 의사소통이 개인적인 요인인 자아 정체감과 사회 문화적인 요인인 양성평등의식보다 부부 친밀감에 더욱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제 3유형에게는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양성평등의식과 양성의 상호 만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양성의 친밀감과 융화를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 가도록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겠겠다.

제 4유형은 '사회제도 강조형'으로, 이들은 양성평등의 실현에 있어 성의 편견 없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하며 교육과 정책 시스템을 통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었다. Conwell (2005)은 사회가 양성평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동뿐 아니라 제도적 차원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 유형의 대상자들은 사회정책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도록 격려함과 아울러 자기가 속한 가정과 사회에서 이러한 양성평등의식을 실천해가도록 도울 수 있는 교육적 지지가 필요하겠겠다.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 주관적 특성은 양성성추구와 양성의 차이인정의 공존으로 나타났다. 다른 직업군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을 연구한 사례와 비교하면, 공무원의 경우 양성평등의식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으며 사회문화 부분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나타냈고 교육생활면에서 가장 평등한 것으로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간호대학생들의 '교육, 승진과 직업 선택에 있어서 양성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공통적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간호사와 많은 연관을 가진 의사직업군의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나, 간호사가 경험하는 성희롱 및 언어적 학대의 가해자의 대

부분이 의사인 것을 미루어 볼 때(Lee, 2003) 병원 사회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문화와 관행들이 존재하며 이것은 지금도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가 열등한 지위로 밀려나지 않으려고 끊임 없이 저항해야 하는 압력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1세기의 날로 새로워지는 과학적 실무에서 양성성추구와 양성 차이의 인정의 조화로움을 이루는, 간호실무와 연관된 양성평등교육이 절실하다.

다변하는 현대의 정보화 사회는 감성을 요구하며, 전문성과 창의력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고령사회에 따른 간호직의 전문성이 더욱 확장됨에 따라 남자 간호대학생과 남자 간호사들이 수적으로 크게 증가한 바, 이들이 현장 실습과 임상 실무에서 성 역할의 혼란과 직무 만족 저하 등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점(An & Chu, 2011)을 고려해 본다면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및 지속적인 교육은 더욱 시급한 관건이 되겠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한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 인식 유형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간호 현장 실습과 임상 실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 아울러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실천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양성평등 교수·학습과정 안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변화의 지속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간호 실무에서는 임상 경력 초기에 성 고정관념을 개선하고 성 평등의식 고취와 심리적 양성성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 전문직 간호사의 성역할 정체감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 인식의 주관적 구조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은 네 가지 유형으로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닌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발견된 유형을 초점으로 개인의 주관성이 고려된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최근 남자 간호사의 증가로 성 역할의 변화를 겪고 있는 간호직과 사람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간호사가 될 간호 학생을 위한 유용한 교육 매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 태도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 2) 남자 간호대학생 등 다양한 연구 대상자를 표집 하여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 3) 본 연구를 토대로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의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n, E. S. (2010). *Study on male nurses' gender stereotype and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Daejeon.
- An, E. S., & Chu, S. K. (2011). Study on male nurses' gender stereotype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1), 14-21.
- Bae, E. J., & Lee, S. J. (2005). The effect of gender equality instruction in home economic class on the high school students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7(1), 1-13.
- Bem, S. L. (1975).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4), 634-643. <http://dx.doi.org/10.1037/h0077098>
- Bickel, J. (2001). Gender equity in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A status report. *Journal of Women's Health & Gender-Based Medicine*, 10(3), 261-270. <http://dx.doi.org/10.1089/152460901300140013>
- Cho, K. W. (2006). Gender and education: What's the problem? *Journal of Women's Studies*, 17, 29-62.
- Connell, R. (2005). Change among the gatekeeper: Men, masculinities, and gender equality in the global arena.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30(3), 1801-1825. <http://dx.doi.org/10.1086/427525>
- EBS Education. (2010, June 09).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Retrieved June 21, 2011, from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4_01.jsp
- Jang, Y. A., & Kim, Y. M. (2010). The effect of parental sex-role attitude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Youth Faculty & Environment*, 8(2), 3-11.
- Kabeer, N. (2003). Gender mainstreaming in poverty eradication a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handbook for policy-makers and other stakeholders*. London: Commonwealth Secretariat.
- Kim, H. J. (2004). A study on the factors of Korean couples' marital satisfaction.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5(3), 839-853.
- Kim, H. K. (2008). Agreement between the Q block and the Q too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16, 5-16.
- Kim, J. C. (2009). The effects of gender sensitive group counseling on college student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1), 271-284.
- Kim, Y. H., & Kang, H. W. (2009). A study on gender equalitarianism of Kyonggi University students. *The Civil Humanities*, 16, 127-164.
- Kim, Y. S., Park, J. H., & Lim, K. Y. (2006). Interpersonal conflicts and communication among medical residents, nurses and technologists.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11(2), 16-31.
- Lee, J. D., Lee, S. J., & Shin, H. S. (2010). The effects of variables o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by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2), 15-30.
- Lee, J. Y. (2003). *An inquiry into realities of sexual harassment of nurse, employed in university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K. S., & Chung, S. J. (2006). A correlational study among gender equality awareness, meaning in life, and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5(1), 14-21.
- Park, I. S., Kim, J. O., Kim, H. J., Nam, H. A., & Lee, K. R. (2009). The study

- of adaptation of male nursing college student-applying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12, 77-77.
- Park, S. H., & Kwon, H. J. (2009). A subjectivity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gender awaren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11), 185-205.
- Seo, J. I., & Park, M. S. (2007). The effects of the movie therapy program on the gender egalitarianism and gender stereotype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6(2), 105-121.
- Strasen, L. (1992). *The image of professional nursing: Strategies for action*.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mpany.
- Sung, M. K., & Lee, H. Y. (2007). Effect of gender equality career education program on vocational gender equalitarianism and career ident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19(1), 121-128.
-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Nursing Policy. (2007). *Yearbook of nursing statistics*. Seoul: Author.
- Vepa, S. S. (2007). Gender equity & human development. *Indian Journal of Medical Research*, 126, 328-340.
- Verdonk, P., Benschop, Y. W. M., De Haes, H. C. J. M., & Largo-Janssen, T. L. M. (2008). Medical students' gender awareness-Construction of the Nijmegen Gender Awareness in Medicine Scale (N-GAMS). *Sex Roles*, 58, 222-234. <http://dx.doi.org/10.1007/s11199-007-9326-x>
- Woo, M. S. (2007). *A study on marital intimacy of middle-aged men an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